

보도시점

2026. 10. 15.(목) 17:30

배포

2026. 10. 15.(목) 06:00

제주의 밭담, 수원에서 만나다...

- 제주밭담 야외체험공간 완공식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협력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목)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주밭담 야외체험공간 완공식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지방정부·주민협의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보전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농업자원으로, 현재 제주밭담 등 전국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밭담 등 6개소*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6개소)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밭담, 하동 전통치농업, 금산 인삼농업, 담양 대나무밭,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제주밭담은 강한 바람과 척박한 화산토양에 적응하여 농업을 지속해 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업유산이다. 이번 야외체험공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농업박물관이 협업하여, 제주 현무암과 흙을 원물 형태 그대로 옮겨와 제주 돌담 장인들이 박물관 다랑이밭 약 180㎡에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최초 사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교육·체험·관광과 연계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제주밭담 재현을 계기로 농업유산 전시를 확대해, 국민이 각 지역의 다양한 농업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정책협력 워크숍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그간 검토해 온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주요 입법 내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유산학회의 농업유산 지역 활성화 방안 제언, 국립농업박물관의 연구·활용 방안과 지역별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사례가 공유됐다.

농식품부 안유영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농업활동을 지속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중요농업유산 개요

2. 제주밭담 야외체험공간 완공식 및 농업유산 정책협력 워크숍 개최 계획(안)
3. 행사 사진(별송)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김한승 (044-201-1555)



- (개념)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농업자원
- (지정기준) ①역사성·지속성, ②생계유지, ③고유한 농업기술, ④전통 농업문화, ⑤특별한 경관, ⑥생물다양성, ⑦주민참여 등 가치성 평가
 - (지정절차) ①지방정부 신청→ ②신청서 검토·보완(농업유산 자문위원회) → ③현장 실사→ ④최종 후보군 추천(농업유산 자문위원회)→ ⑤지정(농식품부)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령 및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식품부 고시)

□ (지정현황) '12년 제도 도입 이후 '25년까지 20개소 지정

연도	유산의 명칭	연도	유산의 명칭
'13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19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상주) 전통 곶감농업
'14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 밭	'21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템
'15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22	(창원) 독외 감 농업,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16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24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17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25	(정읍) 지황농업시스템
'18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현황 : '14년 이후 6개소* 등재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담양 대나무 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 농업,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

- ▲ (주관기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 (목적)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문화, 인류 진화 시스템 및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접근 방식의 농촌개발을 유도('02~)
- ▲ (등재 절차) ①국가추천을 받아 후보지 등록신청(FAO본부) → ②서류심사 및 현지답사(GIAHS 과학자문그룹) → ③결정(FAO 농업위원회)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도



1. 행사 개요

(1부) 제주발담 야외체험공간(재현) 완공식

(2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협력 워크숍

□ 행사 목적

- 국립농업박물관 내 제주발담 야외체험공간 조성을 기념하고 제주 발담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국민에게 확산
- 20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과 농업유산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정책소통 기반 구축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의 법적·정책적 발전 방향과 농업유산 보전·활용 우수사례 공유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0. 15.(목) 13:30~17:00
-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업박물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 대상 : 약 60명 내외

- (지방정부) 제주도청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시·군 담당 등
- (지역 관계자)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보전협의회 대표
- (전문가·유관기관) 농촌진흥청, 한국법제연구원, 농어촌유산학회 등

□ 주요 내용

- 국립농업박물관 ‘제주발담’ 완공식(14:00~15:00, 60분)
- 국가중요농업유산 협력 워크숍(15:00~17:00, 120분)